

‘빈손국회’ 에도 여야 ‘네 탓 공방’ 지속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마무리 되고 있지만 정국 경색은 풀리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전의 단초가 된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기한’을 두고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개헌특위 연장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공전의 책임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당에 떠미는 모양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촛불광장의 준엄한 요구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총국적 완결판”이라며 “국회는 (내년) 2월까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만들고 6월에 국민의 뜻을 직접

개헌특위 연장 기한 놓고 민주-한국당 평행선

민주당 “오로지 자신 요구 관철에만 몰두” 비판

한국당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안돼”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본회의 추가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오로지 자신의 요구 관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에 넣어서 돌아오는 것은 성난 민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못 박아서 안된다

고 맞서고 있다. 개헌특위 연장 거부는 이른바 ‘문재인 개헌’으로 국가체제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의도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은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시켜서 조속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단 동시 실시를 민주당

이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양극단의 대결정치 때문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무조건 강공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패싱하고 있다”며 “2017년 마지막 순간까지 바뀔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이 가당키나 하느냐. 지방선거때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치고 무한정 논의만 하지는 한국당 주장이 상식적인가”라며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모아 한시적으로 집중 논의해 결론 보자는 국민의당 제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결단을 요구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오른쪽)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 안철수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하태경 최고위원.

안 “당밖의 불순한 통합반대 음모와 당당히 맞서 싸울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가 시작된 27일 “당밖의 불순한 통합반대음모가 있다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 어떤 관법과 도박이 난무해도 정도를 견뎌내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미 시작됐지만 오늘부터 나흘동안 펼쳐지는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선택에 저를 재신임해준다면 전 새해 초부터 통합을 추진할 것이고 물론 당원들이 통합을 원치 않는다는 답을 준다면 약속대로 당대표직을 즉시 사임할 것”이라며 “역사적 기록이 될 이번 투표에 당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33명이 탈당해 보수혁신 기치로 만들어졌지만 내부 분란을 여러번 겪으면서 개혁 가치에 충실한 11명의 젊고 당당한 정당으로 다시 됐다”며 “이제 새로운 통합정당으로 판을 바꾸고 개혁 기치를 높이 높이 올려야 한다. 통합은 그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호남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안타깝게도 당내 일부에서 전당원 투표를 중단하란 내용의 가짜문 신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나쁜 투표라는 엉뚱한 말을 만들어 거부운동을 벌인다고 한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호남 민심을 들어서 통합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의 호남당원이 있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밝혔다.



원내 5당 참여하는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발족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유성열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심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정동영 의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뒷줄 왼쪽부터 한국당 정종섭 의원, 민주당 박영선, 전태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 민주당 윤호중 의원.

추미애 “MB 무슨 일 했기에 대통령 특사까지 끌어들이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람에미리트(UAE) 방문을 UAE 원전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질문하며 역공에 나섰다. 전날 청와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해명한 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UAE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무슨 일을 어떻게 했

에 그것을 덮기 위해 대통령 외교 특사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인가”라며 “물결치와 망신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불인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대통령의 외교 특사활동을 비리와 부정을 대하듯 캐고 추적하는 것이 정쟁 거리를 찾아다니는 흥신소인가”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쨌든 대통령 외교 특사의 행적을 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인가”라

며 “한국당은 눈곱만큼도 국익을 보 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윤리 “근거 없는 소설 쓰듯이 계속 의혹을 퍼트리면서 영국과 사우디 원전 수주에도 나쁜 행동을 미치는 망동을 즉각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철저한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국회에서 야당이 외교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이 참담한 지경”이라며 “자당은 외교의 ABC도 무시한 문지마시 정쟁이 오히려 의

교문제 더 어렵게 하는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임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대해 당초 ‘장병 격려차 방문’이었다고 했다가 UAE의 관계 회복과 친서 전달’이라고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중동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파병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해명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임 실장 특사 파견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의 불만 잠재우기, ‘이명박정부의 원전외교 비리를 캐는 새정부의 활동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근거

국민주권연대 “안, 바른정당과 통합 중단해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가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임해온 국민의당이 적폐세력과 통합하겠다는 것은 호남·충북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이명박·박근혜의 적폐를 양산하는데 부역한 집단이자 평화통일 정신을 반대해온 분단 적폐 세력”이라며 “충북 민심에 따라 아직 청산해야 할 적폐와



실현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적폐 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윤리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정체성을 달리하는 것은 새정치 일 수 없다”며 “안 대표가 진정한 새정치를 하겠다면, 충북민심을 배반한 데 대해 사죄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춘정 기자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